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28권 제5호, 2026
<연구논문>

pISSN 1229-2060
eISSN 2287-5743
Korean Fashion & Text. Res. J.
Vol. 28, No. 5, pp.503-514(2026)
https://doi.org/10.5805/SFTI.2026.28.5.503

현대패션에 나타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신체–의복 관계의 재구성

이채영†
국립경국대학교 패션라이프스타일학전공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in Contemporary Fashion and the Reconfiguration of Body–Garment Relationships

Chaiyoung Lee†
Fashion Lifestyle Major,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body-conscious fashion and the reconfiguration of the body–garment relationships in contemporary fashion, with focus directed toward women's ready-to-wear apparel from the spring/summer 2024 to fall/winter 2026 collections. On the basis of images and reviews of Vogue Runway, 25 collections were selected from an initial pool of 41, and 221 looks were identified from a total of 1,207 for analysis. The cases were scrutinized across five dimensions: silhouette, material, structure, body visibility, and visual expression. The analysis uncovered five types of contemporary body-conscious fashion: body-hugging, transparent visibility, selective exposure, structural body-shaping, and body-image illusion. These types reflect diverse associations between bodies and garments through transparency, selective openings, structural shaping, and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bodily forms and skin-like appearances. The reconfiguration of such relationships was then explored via three major aspects: the diversification of body–garment relationships beyond body-hugging expression, the use of the body as an active formative element in garment composition, and the exploration and blurring of visual boundaries between the body and cloth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temporary body-conscious fashion extends beyond a simple revival of earlier body-hugging styles, incorporating diverse approaches to the link between bodies and garments as a means of fashion expression. This study broadens the conceptual scope of body-conscious fashion by demonstrating how contemporary designs incorporate both the visual emphasis of the body and the shaping of body–garment relationships.

Key words: body-conscious fashion(바디컨셔스 패션), body–garment relationship(신체–의복 관계), body visibility(신체 가시화), body shaping(신체 조형), fashion design(패션디자인)

1. 서 론

패션에서 신체는 시대의 미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인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해 왔다. 의복의 형태와 신체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였으며, 신체를 감추거나 드러내는 방식 또한 당대의 미적 기준과 패션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패션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여유로운 실루엣과 함께 신체의 존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디자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실루엣의 변화뿐 아니라 동시대 패션에서 신체와 의복의 관계가 어떠한 조형적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문화적으로도 신체에 대한 인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획일적인 이상적 신체를 추구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Lee and Lee(2020)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확산된 바디 포지티브(body positivity)가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외모 만족과 관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Choe and Chun(2024)은 패션 콘텐츠에 나타난 메시지를 분석하여 패션을 통한 신체 다양성과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Hwang and Choi(2014)는 잘 가꾸어진 건강한 몸매를 드러내기 원하는 현대 소비자들이 신체를 노출시켜 입는 형태로 의복의 개념과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패션에서 신체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최근 패션컬렉션에서도 신체에 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신체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자인이

†Corresponding author: Chaiyoung Lee
Tel. +82-54-820-5497
E-mail: chaiyounglee@gknu.ac.kr
©2026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KFTRJ).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주요 컬렉션과 패션 담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보그(Vogue)는 2022년부터 신체 노출과 관련된 패션이 여러 컬렉션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주요 이슈로 다루었으며(Bateman, 2022), 2024년에는 이전 시즌과 대비되는 슬림한 실루엣의 재등장을 주요 변화로 제시하였다(Rodgers, 2024). 이러한 현상은 최근 패션에서 신체가 다시 디자인의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신체 중심의 디자인을 과거 신체밀착형 스타일의 단순한 반복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신체의 가시화와 조형에 활용되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신체와 의복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신체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패션스타일로 논의되었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바디컨셔스 룩의 미적 특성과 조형적 표현을 고찰하거나, 기능성과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신체밀착형 의복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Lee and Ha (2018)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과 표현을 신체 관리 및 자기표현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바디컨셔스 패션이 의복의 외형적 특성뿐 아니라 착용자의 신체 인식과 표현행동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바디컨셔스 패션의 미적·조형적 특성, 기능성 및 착용자의 신체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를 규명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신체밀착형 실루엣이나 신체 조형의 특성이 최근 컬렉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투과적 소재와 선택적 개방, 구조적 조형 및 신체 형상의 재현 등 다양한 표현이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신체 표현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조형 요소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신체–의복 관계의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4 S/S부터 2026 F/W까지의 여성복 레디 투 웨어(ready-to-wear) 컬렉션을 대상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최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서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유형화하고, 유형 간 공통점과 차이점 및 중첩 양상을 살펴본다. 셋째, 도출된 조형적 유형을 종합하여 최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나타난 신체–의복 관계의 재구성 양상을 규명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개념과 표현

바디컨셔스(body-conscious)는 ‘신체(body)’와 ‘의식하는(conscious)’의 결합어로, 패션에서는 의복을 통해 신체의 존재와 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은 의복 자체의 형태를 강조하거나 신체를 은폐하기보다 신체에 밀착되는 실루엣과 소재를 통해 인체의 윤곽과 곡선을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Cho(2001)는 바디컨셔스 룩을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드러내는 패션으로 보고, 스판덱스와 라이크라를 비롯한 신축성 소재의 발달이 신체에 밀착하면서도 움직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바디컨셔스 패션의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뚜렷한 패션스타일로 드러났다. 특히 Azzedine Alaïa는 신축성 소재와 신체의 형태를 고려한 재단을 통해 인체에 밀착되는 실루엣을 구현하였으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을 대표하였다. The Kyoto costume institute (n.d.)는 Alaïa의 디자인이 신체를 감싸면서 인체의 형태를 강조하였으며, 그가 1980년대 바디 컨셔스 패션을 이끈 대표적인 디자이너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신체밀착형 패션은 이후 스트레치 소재의 보편화와 함께 확산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신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실루엣이 다양한 패션 영역에서 나타났다.

바디컨셔스의 개념은 신체에 밀착되는 실루엣뿐 아니라 신체와 의복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과도 연관되어 왔다. 그중 세컨드 스킨(second skin)은 의복이 신체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피부와 같이 신체의 형태에 밀착되는 관계를 강조한다. Dunne(2010)은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복에서 피트와 여유량이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으며, Garland and Almond (2016)는 신체 윤곽을 강조하는 바디컨셔스 의복을 대상으로 신체의 입체적 형태를 반영하는 패턴 커팅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의복과 신체 형상 간의 밀접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바디컨셔스적 신체 표현은 자연적인 신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의복의 구조를 통해 신체 형태를 강조하거나 조형하는 방식과도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코르셋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압박하고 형태를 변화시키는 구조를 통해 이상적인 신체 실루엣을 형성해 온 의복이다. Yim(2014)은 현대패션에서 코르셋이 속옷에서 겉옷으로 외면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신체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이미지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Kim and Na(2014)는 바디컨셔스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분석하여 신체에 밀착되는 형태가 신체의 가시화뿐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과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연결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Lee and Ha(2018) 역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과 표현이 착용자의 신체 인식 및 몸 관리 행동과 관련됨을 밝힘으로써, 바디컨셔스 패션이 의복의 외형적 특성뿐 아니라 신체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과도 관련되는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개별적인 의복의 형태뿐 아니라 착용된 의복과 신체가 결합하여 형성하는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DeLong(1998)은 의복과 신체를 분리된 대상으로 파악하기보다 착용된 상태에서 형성되는 시각적 전체로 이해하는 apparel–body construct(ABC)

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의복의 실루엣, 소재 및 구조가 신체와 결합하여 어떠한 시각적 형태를 형성하는지 살펴보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역시 신체에 대한 의복의 밀착 여부뿐 아니라 신체와 의복이 결합하여 나타내는 전체적인 조형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신체에 밀착하여 인체의 자연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좁은 의미에서 출발하였으나, 신체와 의복의 경계를 밀접하게 하거나 의복의 구조를 통해 신체의 형태를 강조하고 조형하는 방식까지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신체를 의복의 주요 조형 대상으로 인식하고, 의복의 형태·소재·구조 및 신체와의 관계를 통해 신체의 윤곽이나 특정 부위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거나 조형하는 패션스타일로 정의할 수 있다.

2.2.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현대적 맥락

패션에서 신체와 의복의 관계는 시대의 미적 기준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까지 스키니 진과 레깅스 등 신체의 윤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실루엣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던 것과 달리,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와이드 팬츠와 루즈 핏, 오버사이즈 실루엣 등 신체와 일정한 거리를 형성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대 초반에도 이어졌다. 보그는 2021년경 패션의 흐름이 극단적인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이동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2023 S/S 데님 트렌드에서는 배기 진이 스키니 진을 대체하는 주요 실루엣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2023년에는 Diesel, Loewe, Balenciaga 등의 런웨이를 중심으로 배기 데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와이드 및 여유로운 실루엣이 주요 패션 경향으로 지속되었다(Kessler, 2023).

그러나 신체로부터 거리를 두는 실루엣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2022년을 전후하여 신체 자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가시화하는 또 다른 흐름이 주목받았다. Bateman(2022)은 보그에서 2022년 S/S와 F/W 컬렉션에 네이키드 드레스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Puppets and Puppets, Schiaparelli, Sinead Gorey, Y/Project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당시의 네이키드 드레스는 단순히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어 소재, 컷아웃, 신체밀착형 의복, 신체 이미지를 활용한 프린트 및 트롱프뢰유(trompe-l'œ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신체의 윤곽을 의복의 실루엣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피부의 노출이나 신체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신체의 존재를 강조하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2023년에도 지속되었으나, 당시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곧바로 신체밀착형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보그는 2023년을 배기 데님이 지배한 시기로 평가하며 Diesel, Loewe, Balenciaga 등의 사례를 제시했지만, 같은 시기 일부 셀러브리티와 패션디자인에서는 슬림 핏과 스키니 진의 재등장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였다(Kessler, 2023). 이러한 흐름은 2024 F/W를 전후하여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체의 노출뿐 아니라 신체의 윤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스키니 및 슬림 실루엣이 주요 런웨이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Rodgers (2024)는 보그에서 2024년 F/W 컬렉션의 슬림 실루엣의 재등장은 신체와 일정한 거리를 형성하는 의복과 신체의 선과 윤곽을 강조하는 의복이 동시대 패션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2024년에는 신체를 드러내는 시어 및 트랜스페어런트 패션 역시 두드러졌는데, 이런 경향은 런웨이에 한정되지 않고 멧갈라와 같은 레드카펫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어 및 네이키드 드레싱이 동시대 패션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패션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재부각을 특정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단일한 트렌드로 보기보다는 서로 다른 실루엣과 신체 표현 방식이 공존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범위 및 대상

본 연구는 최근 패션에서 신체의 형태와 존재가 다시 주요한 표현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2024년 S/S부터 2026년 F/W까지로 연구 범위를 설정 하였다. 2022년을 전후하여 시어(sheer), 네이키드 드레싱(naked dressing), 컷아웃(cut-out) 등 신체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스키니 및 슬림 실루엣이 주요 컬렉션에 다시 등장하면서 신체의 노출뿐 아니라 신체의 윤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은 레디 투 웨어 컬렉션으로 한정하였다.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는 제작 방식과 디자인의 실험성, 착용 목적 등에 있어 레디 투 웨어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례 수집을 위한 주요 자료원은 보그 런웨이의 컬렉션 이미지와 리뷰로 설정하였으며, 디자인의 세부 형태 및 제작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 브랜드의 공식 컬렉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3.2. 사례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신체의 윤곽이나 특정 부위를 의복의 주요 조형 요소로 가시화하거나 신체의 형상을 조형하는 패션스타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례 선정은 키워드 검색을 통한 1차 컬렉션 수집, 검색 맥락 및 컬렉션 특성에 대한 2차 검토, 개별 룩에 대한 시각적 검토, 의류학 전공 교수와의 공동 재검토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body-conscious, bodycon, second skin, skin-tight, body-hugging, form-fitting, sheer, transparent, naked, bodysuit, corset, corsetry, body-contouring, cut-out, trompe-l'œil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는 특정 조형적 유형을 사전에 설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와 의복의 관계가 주요하게 다루어진 컬렉션을 폭넓게 탐색하기 위한 수집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총 41개 컬렉션을 1차 후보군으로 수집하였다.

사례 선정과 분석에서는 실루엣, 소재, 구조, 신체 가시화 및 시각적 표현의 다섯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개별 룩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요소 간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유사한 사례를 질적으로 분류하여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신체의 가시화가 신체밀착형 실루엣뿐 아니라 소재의 투과성, 의복의 부분적 개방, 구조적 형태 및 신체 형상의 시각적 재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다만 투명한 소재나 컷아웃, 코르셋 등의 디자인 요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요소가 신체의 윤곽이나 특정 부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신체 형상을 조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차 수집된 컬렉션에 대해서는 검색어가 실제로 신체와 의복의 조형적 관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와 해당 특성이 컬렉션 이미지에서 확인되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첫째, 신체의 윤곽이나 피부 또는 신체의 존재가 의복을 통해 명확하게 가시화되는 경우, 둘째, 의복의 실루엣·소재·구조 또는 시각적 표현이 신체와의 관계를 주요한 디자인 요소로 형성하는 경우, 셋째, 신체의 강조·노출·변형 등 신체와 의복의 관계가 컬렉션의 주요 조형적 표현으로 확인되는 경우, 넷째, 컬렉션의 전신 이미지와 시즌 및 브랜드 등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반면 검색어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특성이 일부 디자인의 부수적인 요소에 그치거나 일반적인 피트 및 노출 표현과 구별되기 어렵고, 신체와 의복의 관계가 주요 조형적 특성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컬렉션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41개 컬렉션 중 25개 컬렉션을 2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컬렉션에 포함된 전체 1,207개 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컬렉션 전체를 하나의 바디컨셔스 사례로 간주하지 않고 개별 룩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으며, 신체의 윤곽이나 피부가 의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시화되거나 의복의 형태·소재·구조 및 시각적 표현을 통해 신체가 강조 또는 변형되는 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투명 소재, 신축 소재, 신체밀착형 실루엣, 코르셋, 절개 및 개방 등 하나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례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요소가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조형적 수단으로 작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221개 룩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최종 선정된 사례의 조형적 특성은 바디컨셔스 패션 및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의 고찰과 수집된 사례에 대한 예비관찰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DeLong(1998)의 ABC 이론을 참고하여 신체와 의복을 분리된 대상으로 파악하기보다, 착용된 의복과 신체가 결합하여 형성하는 전체적인 시각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항목은 의복의 외형적 형태와 신체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루엣, 신체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소재, 의복의 구성 방식과 신체 형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구조, 의복을 통해 신체가 드러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신체 가시화, 의복 표면에서 신체와의 시각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각적 표현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항목은 ABC 이론에서 직접 도출된 분류가 아니라, 신체와 의복의 통합적 관계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바디컨셔스 패션 및 신체–의복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사례의 조형적 특성을 종합하여 설정하였다. 각 분석 항목과 관련 선행연구, 구체적인 관찰 기준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하나의 룩에 여러 조형적 특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두드러진 조형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대표 유형에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배적 특성은 특정 소재나 구조의 사용 여부보다 해당 요소가 신체의 형태와 가시성을 형성하는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신체밀착형은 신체의 윤곽과 굴곡이 의복의 외형에 직접 반영되는 특성을, 투과적 가시화형은 소재를 통해 일반적으로 가려지는 신체 부위나 속옷 등이 드러나 신체와 의복의 시각적 경계가 약화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선택적 개방형은 절개나 개방을 통해 노출된 신체 일부가 의복의 구성과 결합하여 조형적 효과를 형성하는 양상을, 구조적 신체조형형은 의복의 구성선이나 입체적 성형을 통해 신체의 외형이 강조되거나 변형되는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이미지 착시형은 의복에 재현된 신체 형상이나 피부와 유사한 시각적 특성이 신체와 중첩되어 착시 효과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Andreadamo 2024 S/S 컬렉션의 사례는 신체밀착성과 투과성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신체의 윤곽을 강조하는 밀착성보다 피부색과 유사한 투명 소재를 통해 피부와 언더웨어가 비쳐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더욱 두드러져 투과적 가시화형으로 분류하였다.

1차 사례 선정과 예비분석은 연구자 1인이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기록하고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사례를 비교 및 분류하였다. 이후 선정된 사례와 유형 분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류학 전공 교수 1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유형 간 경계가 모호한 사례와 지배적 특성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류 기준을 보완하고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 221개 룩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현대패션에 나타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유형

최종 선정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유형별 분포는 신체밀착형 47개(21.3%), 투과적 가시화형

Table 1. Keyword-based screening of body-conscious fashion collections

Collection	Selection	Selection rationale	Selected looks (n)
Andreadamo 2024 S/S	Included	Close fit + transparency + emphasized body contours	12
Xuly.Bët 2024 S/S	Included	Stretch fabric + second-skin silhouette	4
Karoline Vitto 2024 S/S	Included	Cut-outs + transparency + emphasized body curves	18
Maccapani 2024 S/S	Included	Jersey + body-contouring expression	7
Mark Fast 2024 S/S	Included	Stretch knit + cut-outs + body exposure	9
Di Petsa 2024 S/S	Included	Close fit + corsetry + body imagery	18
Yigal Azrouël 2024 S/S	Excluded	Limited formative combination	0
Quira 2024 S/S	Excluded	Limited body-conscious relevance	0
Andreadamo 2024 F/W	Included	Second-skin fit + body shaping	8
Di Petsa 2024 F/W	Included	Close fit + sheer + exposure	19
Hermès 2024 F/W	Included	Stretch leather + emphasized body contours	5
Salon 1884 2024 F/W	Included	Second-skin fit + bodysuit silhouette	5
The Attico 2024 F/W	Included	Second-skin fit + corsetry + body visibility	6
PH5 2024 F/W	Included	Second-skin fit + emphasized body contours	5
Acne Studios 2024 F/W	Included	Skin-tight fit + molded body form	9
Saint Laurent 2024 F/W	Excluded	Transparency without distinct body–garment interaction	0
Norma Kamali 2024 F/W	Excluded	Bodysuit as a single feature	0
Monique Lhuillier 2024 F/W	Excluded	Conventional fitted silhouette	0
Balenciaga 2025 S/S	Included	Body stocking + trompe-l'œil body imagery	12
Wiederhoeft 2025 S/S	Included	Corsetry + structural body reshaping	9
Schiaparelli 2025 S/S	Included	Close fit + corsetry + emphasized hourglass silhouette	11
Brandon Maxwell 2025 S/S	Included	Close fit + transparency + body visibility	4
Victoria Beckham 2025 S/S	Included	Figure-hugging fit + corsetry + body shaping	8
Donna Karan 2025 S/S	Excluded	Predominantly conventional close fit	0
Partow 2025 S/S	Excluded	Limited to selected looks	0
Alexis Mabille 2025 S/S	Excluded	Limited formative combination	0
Christian Dior 2025 S/S	Excluded	Limited body-conscious relevance	0
Dilara Findikoglu 2025 F/W	Included	Second-skin fit + body contouring + translucency	13
Mark Fast 2025 F/W	Included	Tight knit + corset structure + body shaping	6
ATXV 2025 F/W	Included	Second-skin fit + transparency + cut-out exposure	6
Ahluwalia 2025 F/W	Excluded	Limited formative combination	0
Donna Karan 2025 F/W	Excluded	Conventional body-hugging fit	0
Elie Saab 2025 F/W	Excluded	Limited to eveningwear looks	0
Elisabetta Franchi 2025 F/W	Excluded	Conventional fitted silhouette	0
KNWLS 2026 S/S	Included	Lycra fit + corsetry + emphasized body lines	9
Christian Cowan 2026 S/S	Included	Skin-tight latex + corsetry + body shaping	5
COS 2026 S/S	Excluded	Limited formative combination	0
Gucci 2026 F/W	Included	Body-contouring fit + emphasized silhouette	12
Ahluwalia 2026 F/W	Included	Corsetry + structural body contouring	1
Petar Petrov 2026 F/W	Excluded	Limited formative combination	0
Maccapani 2026 F/W	Excluded	Stretch fit without distinct body shaping	0

55개(24.9%), 선택적 개방형 62개(28.1%), 구조적 신체조형형 41개(18.6%), 신체이미지 착시형 16개(7.2%)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과 신체–의복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대표 사례는 해당 유형의 주요 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소재, 실루엣 및 구조의 표현 방식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Table 2. Analytical framework for body-conscious fashion style

Analytical category	Observation criteria	Related studies
Silhouette	Degree of body fit; relationship between body contours and garment silhouette	Cho (2001); Dunne (2010); Garland and Almond (2016)
Material	Stretchability, transparency and translucency; material properties and surface characteristics related to body expression	Cho (2001); Dunne (2010); Bateman (2022)
Structure	Cutting and openings; compression and support; emphasis or modification of the body form through garment construction	Garland and Almond (2016); Yim (2014); Bateman (2022)
Body visibility	Ways in which body contours and skin are made visible through clothing; direct or indirect exposure; visibility of concealed body areas or undergarments; visual interaction between body contours and transparent garments.	Cho (2001); Bateman (2022)
Visual expression	Prints, trompe-l'œil, body imagery, and other vis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body and garment surface	Bateman (2022)

4.1.1. 신체밀착형

신체밀착형은 의복의 실루엣이 신체의 외곽선을 그대로 살려 신체의 윤곽을 직접적으로 가시화하는 유형이다. 신축성이 높은 니트, 저지 및 스트레치 소재가 주로 활용되었으며, 의복의 형태가 신체로부터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보다 착용자의 신체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전통적인 바디컨셔스 패션의 신체밀착적 특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계승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Gucci의 2026 F/W 컬렉션에서는 신체에 밀착되는 상의와 팬츠(Fig. 1), 신축성 있는 튜브 드레스 및 압박형 폴로셔츠 등을 통해 신체의 윤곽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Phelps(2026)는 이러한 컬렉션의 방향을 "body conscious"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신축성과 압박성을 지닌 소재가 신체에 밀착되면서 신체의 선을 의복의 외형으로 전환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Balenciaga의 2025 S/S에서는 신체에 밀착되는 보디수트와 보디스타킹 등을 통해 신체의 외곽선이 의복의 형태와 거의 일치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피부에 가깝게 밀착되는 스트레치성 얇은 소재는 의복의 존재감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착용자의 신체 형태를 더욱 직접적으로 인지하게 하였다(Fig. 2). 이는 신체 밀착이 단순히 타이트한 실루엣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신체와 의복 사이의 시각적 경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Victoria Beckham의 2025 S/S에서도 신체 밀착형 니트와 신체의 곡선을 따라 형성되는 실루엣을 통해 신체 밀착적 표현이 나타났다. 특히 신체의 허리와 상체의 곡선을 따라 의복이 밀접하게 구성되면서 최소한의 절개를 활용하여 신체의 자연적인 윤곽을 강조하였다(Fig. 3). 이처럼 세 사례에서는 신축, 압박, 얇은 소재 및 신체곡선을 따르는 실루엣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의복의 외곽선을 신체의 외곽선과 밀접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신체를 직접적으로 가시화한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밀착형은 기존 바디컨셔스 패션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형으로, 신축성과 밀착성을 통해 실제 신체의 윤곽을 의복의 외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서는 단순한 타이트 핏에서 나아가 신축, 압박 및 투과 등의 소재 특성이 신체에 밀착된 실루엣과 결합하는 특성을 보였다. 본 유형의 각 사례는 활용 소재와 실루엣의 구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신체의 외곽선을 의복의 형태로 직접 가시화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4.1.2. 투과적 가시화형

Dilara Findikoglu의 2025 F/W 컬렉션에서는 신체에 밀착되는 얇은 쉬폰 보디스타킹과 투과성 소재가 적극적으로 사용되



Fig. 1. Gucci fall 2026 ready-to-wear. *Phelps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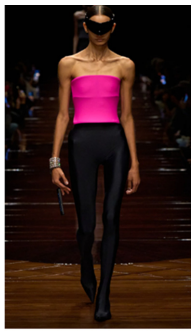


Fig. 2. Balenciaga spring 2025 ready-to-wear. *Phelps (2024a).*



Fig. 3. Victoria Beckham spring 2025 ready-to-wear. *Holgate (2024).*



Fig. 4. Dilara Findikoglu fall 2025 ready-to-wear.
Mower (2025).



Fig. 5. Andreadamo spring 2024 ready-to-wear.
Cardini (2023).



Fig. 6. Brandon Maxwell spring 2025 ready-to-wear.
Phelps (2024b).

었다. Mower(2025)는 이 컬렉션을 “second-skin chiffon body stockings”으로 표현하였는데, 얇은 소재가 신체를 덮고 있음에도 피부와 신체의 윤곽이 동시에 인지됨으로써 의복이 신체를 은폐하기보다 오히려 가시화하는 매개로 작용하였다(Fig. 4). Andreadamo의 2024 S/S에서도 투과성을 지닌 니트와 얇은 소재가 신체 밀착 실루엣과 결합하여 신체의 곡선과 피부를 동시에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났다(Fig. 5). 더불어, 피부색과 유사한 색상군의 소재를 활용하여 신체와 의복의 시각적 경계를 약화시키는 특성을 보였다. Cardini(2023)는 이 컬렉션을 보디 콘 드레싱(body-con dressing)의 맥락에서 설명하였으며, 세컨드 스킨 형태의 의복과 투과적인 소재가 결합되면서 신체와 의복의 경계가 약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Brandon Maxwell의 2025 S/S에서는 투명 및 반투명 소재를 의복에 중첩하거나 신체 밀착 실루엣과 결합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특히 투과성 소재가 불투명한 이너와 함께 구성되면서 보이는 영역과 가려지는 영역 사이의 대비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신체의 존재가 더욱 강조되었다(Fig. 6).

이상과 같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서 소재의 투명성은 단순한 물리적 특성을 넘어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형성하는 조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려지는 신체 부위나 언더웨어가 투과성 소재를 통해 드러나며, 피부와 소재, 의복 표면이 시각적으로 중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어 소재의 활용이나 신체의 직접적인 노출과 구별된다. 사례에 따라 투과성 소재가 신체에 밀착되거나 다른 소재와 중첩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신체를 간접적으로 가시화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투과적 가시화형은 소재를 매개로 신체의 가시성을 형성하는 것을 핵심적인 조형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3. 선택적 개방형

선택적 개방형은 컷 아웃, 절개, 틈 및 개방 등의 구조를 통해 신체의 특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노출하는 유형이다. Karoline Vitto의 2024 S/S 컬렉션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Phelps(2023)는 해당 컬렉션의 디자인을 “body-conscious pieces”로 설명하였으며, 금속 링크로 연결된 골반 부분의 컷아웃, 가슴의 곡선을 따라 형성된 개방 구조, 사다리형 컷아웃 등을 통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의복 구조 안에서 선택적으로 노출되었다. 특히 개방부가 임의로 배치되기보다 신체의 곡선을 따라 구성됨으로써 노출된 피부 자체가 디자인의 일부로 기능하였다(Fig. 7). Di Petsa의 2024 F/W에서는 신체에 밀착되는 드레이프와 절개 및 개방된 구조가 결합되어 신체의 특정 영역이 선택적으로 드러났다. 신체를 감싸는 부분과 노출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구성되면서 신체와 의복 사이에 가림과 노출의 리듬이 형성되었으며, Fig. 8의 사례에서는 기존에 은폐되던 가슴부위를 노출함으로써 신체를 드러내고 강



Fig. 7. Karoline Vitto spring 2024 ready-to-wear.
Phelp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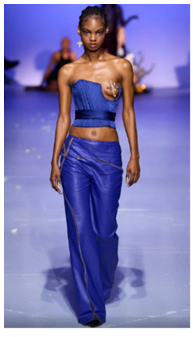


Fig. 8. Di Petsa fall 2024 ready-to-wear.
Kessler (2024).



Fig. 9. Gucci fall 2026 ready-to-wear.
Phelps (2026).

조하는 표현 기법이 나타났다. Gucci의 2026 F/W에서도 신체 밀착 실루엣과 함께 의복의 개방된 부분을 통해 신체가 선택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의복 전체를 투명하게 구성하는 것과 달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시선을 집중시키며, 신체에 밀착된 부분과 노출된 골반 부위의 대비를 통해 신체의 형태를 강조한다(Fig. 9). 또한 인체와 대비되는 색상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개방된 부분과 노출된 피부의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어 선택적 노출의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선택적 개방형에서 중요한 것은 노출의 정도 자체라기보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방하고 프레이밍 하는가에 있다. 절개와 개방부는 신체의 곡선을 따라 배치되며, 노출된 피부는 의복의 빈 공간인 여백과 유사한 조형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신체가 단순히 의복에 의해 드러나는 대상이 아니라 의복의 형태를 완성하는 하나의 조형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유형에서는 개방부의 위치와 형태, 신체 노출의 범위는 사례마다 달랐으나, 노출된 피부를 의복의 구성 요소로 활용하여 신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다.

4.1.4. 구조적 신체조형형

구조적 신체조형형은 의복이 기존 신체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코르셋 기법, 절개선, 입체적 성형 및 구성 구조 등을 통해 신체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신체가 의복을 통해 드러나는 대상인 동시에 의복 구조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는 대상으로 나타났다.

Wiederhoeft의 2025 S/S 컬렉션에서는 코르셋 기법이 신체 조형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Garcia-Furtado(2024)에 따르면 Wiederhoeft는 신장, 몸통, 체형 및 컵 사이즈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코르셋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디자이너 역시 자신의 작업에서 신체를 조작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코르셋은 단순히 역사적 의복의 형태를 차용한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허리와 상체의 형태에 직접 개입하여 새로운 신체 실루엣을 형성하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였다(Fig. 10). Acne Studios의 2024 F/W에서는 소재 자체의 성형을 통한 또 다른 신체 조형 방식이 나타났다. Leitch(2024)는 Acne Studios 컬렉션의 일부 가죽 드레스는 반복적으로 소재를 적시는 과정을 통해 형태를 고정하고 착용자의 신체 주변에 맞도록 미리 성형되었다고 설명하였다(Fig. 11). 이는 코르셋과 같이 신체를 직접 압박하여 변형하기보다 소재 자체를 신체의 형태에 대응하도록 성형함으로써 새로운 신체 외곽선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KNWLS의 2026 S/S에서는 코르셋과 기능성 소재, 인체공학적 선의 결합을 통해 신체의 구조를 강조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Leitch(2025)는 플라이니트(flyknit)로 제작된 코르셋과 튜브형 편직 라이크라 소재, 신체의 물리적 구조를 따라 배치된 인체공학적 파이핑 등을 주요 특징으로 설명하였다(Fig. 12). 이러한 요소들은 신체를 단순히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의 근육과 골격의 방향을 시각적으로 따라가면서 신체의 구조를 의복의 구성 선으로 전환하였다.

본 유형은 코르셋 구조, 소재의 입체적 성형, 신체의 윤곽을 따르는 구성선 등 조형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의복의 구조적 요소를 통해 신체의 형태를 강조하거나 변형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특히 구성선과 입체적 구조는 허리 및 골반, 가슴, 엉덩이 등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실제 신체의 윤곽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는 신체의 형태가 의복의 외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넘어, 의복의 구조적 개입을 통해 신체의 실루엣이 시각적으로 재구성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4.1.5. 신체이미지 착시형

신체이미지 착시형은 의복이 실제 신체에 단순히 밀착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의 가공과 성형, 색채 및 표면 표현을 통해 인체의 형태와 피부의 시각적 특성을 의복 자체의 형태나 표면에 재현하여 실제 신체 또는 피부가 드러난 듯한 착시를 형성하는 유형이다. 구조적 신체조형형이 의복의 구성과 입체적 형태를 통한 신체 실루엣의 강조 및 변형에 중점을 둔다면, 신체이미지 착시형은 의복의 표면이나 형태에 재현된 신체 형상이 실제 신체와 시각적으로 중첩되는 표



Fig. 10. Wiederhoeft spring 2025 ready-to-wear. *Garcia-Furtado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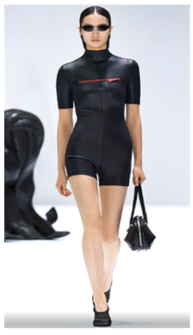


Fig. 11. Acne Studios fall 2024 ready-to-wear. *Leitch (2024).*



Fig. 12. KNWLS spring 2026 ready-to-wear. *Leitch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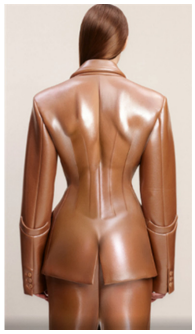


Fig. 13. Andreadamo fall 2024 ready-to-wear.
Cardini (2024).



Fig. 14. Dilara Findikoglu fall 2025 ready-to-wear.
Mower (2025).



Fig. 15. Christian Cowan spring 2026 ready-to-wear.
Allaire (2025).

Table 3. Formative types of contemporary body-conscious fashion style

Type	Formative principle	Body–garment relationship
Body-hugging	Close fit, stretch, emphasized body contours	Garment closely follows the body contour, directly visualizing the body shape
Transparent visibility	Sheer, transparent and translucent materials; visibility of skin or undergarments	Body and skin are indirectly visualized through the material, weakening the visual boundary between body and garment
Selective exposure	Cut-outs, openings, structural gaps	Selected body areas become part of the garment composition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covering and exposure
Structural body-shaping	Corsetry, construction lines, three-dimensional molding	Garment structure emphasizes or reshapes the body form
Body image illusion	Material processing, molding, skin-like surface, body imagery, color contrast	Bodily form or skin-like characteristics are reproduced through the garment itself, creating visual illusions and blurring the boundary between the actual and represented body

현에 중점을 둔다. 즉 실제 신체와 의복에 의해 재현된 신체 형상이 시각적으로 중첩되면서 신체와 의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Andreadamo의 2024 F/W 컬렉션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Cardini(2024)는 해당 컬렉션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접근을 해부학적 관점과 연결하여 설명하였으며, 피부색과 유사한 표면을 가진 새로운 스쿠버(scuba) 소재가 신체에 거의 성형된 듯한 강한 형태를 형성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가공된 소재가 신체를 단순히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의 굴곡과 입체적인 형태를 따라 조형됨으로써 의복 자체가 또 하나의 신체 표면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형성하였다(Fig. 13). Dilara Findikoglu의 2025 F/W 컬렉션에서도 소재를 통해 신체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컬렉션에서는 신체에 밀착되는 얇은 보디스타킹 뿐 아니라 가죽 소재를 신체의 형태에 따라 입체적으로 조형한 신체 조형형 드레스(Fig. 14)가 제시되었다(Mower, 2025). 특히 후자의 경우 소재가 신체의 외곽선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 신체의 입체적인 형태를 의복 자체의 표면과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신체와 조형된 신체 형상 사이의 시각적 중첩을 형성하였다. Christian Cowan의 2026 S/S 컬렉션에서는 신체에 밀착되는 라텍스 소재와 피부색에 가까운 패널을 교차 배치하여 신체가 부분적으로 노출된 듯한 시각적 착시를 형성하였다(Fig. 15). 특히 붉은색과 피부색 계열의 가로 패널이 신체를 따라 반복되면서 실제 피부와 의복 표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체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도 의복의 색채와 표면 구성을 통해 신체의 가시성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본 유형은 신체의 입체적 형상을 재현하거나 피부와 유사한 색채 및 표면을 활용하는 등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의복에 형성된 신체 이미지가 실제 신체와 시각적으로 중첩되어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특히 의복에 표현된 신체 형상이나 피부의 시각적 특성이 실제 신체의 일부처럼 인식되면서, 신체와 의복의 구분을 흐리게 하는 착시 효과를 형성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서 나타난 주요 조형 원리와 신체–의복의 관계를 유형별로 종합하면 Table 3과 같다.

4.2.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재구성 양상

앞선 분석 결과를 기존 바디컨셔스 패션의 특성과 비교하면,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은 과거의 신체 밀착적 특성을 지속하면

서도 신체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과 신체–의복의 관계가 보다 다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구성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체 밀착 중심의 표현과 함께 신체–의복 관계가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바디컨셔스 패션은 신축성 소재와 신체 밀착 실루엣을 통해 실제 신체의 윤곽과 곡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핵심적인 표현 방식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신체를 인식시키는 방식이 밀착적 표현과 함께 다양한 관계로 전개되고 있었다. 현대의 바디컨셔스 패션에서는 신체와 소재가 중첩되거나, 신체 일부가 의복의 구조에 개입하고, 의복이 신체 형태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신체의 형상을 재현하는 관계가 함께 나타났다. 이는 바디컨셔스 패션을 규정하는 핵심이 특정한 타이트 실루엣에만 한정되지 않고 신체와 의복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은 기존의 신체밀착성을 계승하면서도 신체와 의복 사이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둘째, 신체의 외형적 강조와 함께 신체 자체를 조형적 요소로 활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기존 바디컨셔스 패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신체의 윤곽과 곡선을 강조하는 표현은 최근 컬렉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에서는 신체 자체가 의복의 형태와 공간, 표면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형 요소로 활용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노출된 피부는 의복의 개방된 공간과 결합하여 디자인의 일부를 형성하고, 신체의 굴곡은 소재의 성형이나 구조선을 형성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반대로 의복의 구조는 신체의 윤곽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실루엣을 형성한다. 이처럼 신체는 의복에 의해 드러나는 동시에 의복과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조형적 형태를 완성하는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에서 신체와 의복의 관계가 신체의 외형을 강조하는 방식뿐 아니라 상호적인 조형 관계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신체의 자연적인 곡선을 강조하거나 의복 구조를 통해 특정한 신체 실루엣을 형성하는 방식은 바디컨셔스 패션의 주요 표현 특성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와 함께 실제 신체와 의복 사이의 시각적 경계를 약화시키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과 같이 신체의 외형적 강조와 함께 신체–의복의 시각적 경계를 탐색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피부가 의복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지되거나 피부색과 유사한 소재가 신체와 결합하면서 신체와 의복의 시각적 구분이 약화되고, 소재를 신체 형태에 따라 성형하거나 신체의 형상 및 피부와 유사한 이미지를 의복 자체에 재현함으로써 실제 신체와 조형된 신체가 중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바디컨셔스 패션의 관심은 신체를 드러내는 방식과 함께 신체와 의복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변화시키는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기존의 신체 밀착성과 신체 가시화라는 특성을 계승하면서도 신체–의복 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즉 신체는 밀착된 의복을 통해 드러나는 대상인 동시에, 의복의 형태·구조·표면을 형성하며 의복과 상호작용하는 적극적인 조형 요소로 기능한다. 따라서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의 재구성은 과거의 신체밀착형 스타일이 단순히 반복되는 현상이라기보다, 신체를 '드러내는 패션'과 신체–의복의 관계 자체를 '조형하는 패션'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바디컨셔스 패션의 개념적 범위를 신체밀착형 실루엣을 넘어 신체의 가시화와 조형, 신체–의복 간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패션에서 신체의 형태와 존재가 다시 주요한 표현 대상으로 부각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2024년 S/S부터 2026년 F/W까지의 여성복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을 대상으로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신체-의복 관계의 재구성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형성하는 주된 조형 방식에 따라 신체밀착형, 투과적 가시화형, 선택적 개방형, 구조적 신체 조형형, 신체이미지 착시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신체밀착형은 신축성과 밀착성을 통해 신체의 윤곽을 의복의 외형으로 직접 전환하였으며, 투과적 가시화형은 투명·반투명 소재를 매개로 피부와 신체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가시화하였다. 선택적 개방형은 절개와 개방을 통해 노출된 신체 일부를 의복의 조형 구성에 포함하였으며, 구조적 신체조형형은 코르셋 구조, 구성선 및 입체적 성형 등을 통해 신체의 실루엣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재구성하였다. 신체이미지 착시형은 소재의 가공과 성형, 색채 및 표면 표현을 통해 신체의 형태와 피부의 시각적 특성을 의복의 형태나 표면에 재현하여 실제 신체와 의복 사이의 시각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되기보다 하나의 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이 중첩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존 바디컨셔스 패션의 특성과 연결하여 고찰한 결과,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의 재구성 양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신축성 소재와 신체밀착 실루엣을 중심으로 신체의 윤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던 방식과 함께 신체와 의복의 관계가 보다 다층적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둘째, 신체는 의복에 의해 강조되는 대상인 동시에 의복의 형태·공간·표면을 구성하고 의복과 상호작용하는 적극적인 조형적 매체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선택적 개방형과 구조적 신체조형형에서는 노출된 피부와 의복의 구성 구조가 결합하여 신체–의복 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신체의 외형을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실제 신체와 의복, 피부와 소재, 실제 신체와 의복에 의해 재현된 신체 형상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키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은 과거의 신체밀착형 스타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현상만으로 보기 어렵다. 기존 바디컨셔스 패션의 핵심이었던 신체 밀착성과 신체의 가시화를 계승하면서도, 신체를 드러내는 방법과 신체–의복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바디컨셔스 패션의 조형적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은 신체를 '드러내는 패션'과 신체와 의복의 관계 자체를 '조형하는 패션'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바디컨셔스 패션의 개념이 특정한 타이트 실루엣이나 아이템을 넘어 신체의 가시화와 조형, 신체–의복 간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패션에서 나타나는 신체 중심의 디자인을 과거 스타일의 재유행으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바디컨셔스 패션과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특히 현대 컬렉션 사례를 바탕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유형화하고, 신체와 의복의 관계가 밀착을 중심으로 한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투과, 개방, 구조적 조형 및 신체이미지의 착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의 조형적 표현 범위와 신체-의복 관계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2024년 S/S부터 2026년 F/W까지의 여성복 레디 투 웨어 컬렉션과 보그 런웨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범위의 한계를 갖는다. 또한 사례의 유형화 과정에서 하나의 룩에 복수의 조형적 특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유형 간 경계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과 자료원을 확대하고, 유형별 출현 빈도와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검토하거나 남성복 및 다양한 패션 영역과의 비교를 통해 현대 바디컨셔스 패션의 변화와 확장 양상을 더욱 폭넓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llaire, C. (2025, September 14). Christian Cowan spring 2026 ready- 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6,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6-ready-to-wear/christian-cowan

Bateman, K. (2022, April 8). The best naked dresses to shop now—Plus, a brief history of the tre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article/best-naked-dresses

Cardini, T. (2023, September 23). Andreadamo Spring 2024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4-ready-to-wear/andreadamo

Cardini, T. (2024, February 27). Andreadamo Fall 2024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3,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4-ready-to-wear/andreadamo

Cho, K.-H. (2001). *An analysis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body-conscious look*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RISS. https://www.riss.kr/link?id=T9967418

Choe, Y., & Chun, J. (2024). Understanding fashion content types and messages in plus-size YouTuber channels. *Journal of Fashion Design, 24*(2), 149-170. doi:10.18652/2024.24.2.9

DeLong, M. R. (1998). *The way we look: Dress and aesthetics* (2nd 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Dunne, L. (2010). Beyond the second skin: An experimental approach to addressing garment style and fit variables in the design of sensing gar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3*(3), 109-117. doi:10.1080/17543266.2010.505202

Garcia-Furtado, L. (2024, September 11). Wiederhoeft Spring 2025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5-ready-to-wear/wiederhoeft

Garland, E., & Almond, K. (2016). Second skin: Investigating the production of contoured patterns for the theatrical costume industry. *Costume, 50*(1), 90–113. doi:10.1080/05908876.2015.1129860

Holgate, M. (2024, September 27). Victoria Beckham Spring 2025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5-ready-to-wear/victoria-beckham

Hwang, Y. J., & Choi, J. H. (2014). A study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leggings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6*(1), 1-12. doi:10.5805/SFTI.2014.16.1.1

Kessler, A. (2023, December 20). Is Bella Hadid about to revive skinny jeans? *Vogue.* Retrieved September 5, 2026, from https://www.vogue.com/article/bella-hadid-skinny-jeans-revival

Kessler, A. (2024, February 19). Di Petsa Fall 2024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5,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4-ready-to-wear/di-petsa

Kim, H., & Na, H. (2014). A study on ergonomic fashion design: Focused on body conscious active sportswear.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6*(3), 434–445. doi:10.5805/SFTI.2014.16.3.434

Lee, C. Y., & Ha, J. S. (2018). Korean men's degree of acceptance and expression specificities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Focused on body management participants in 20-30s. *Journal of Fashion Design, 18*(2), 21-38. doi:10.18652/2018.18.2.2

Lee, M., & Lee, H.-H. (2020). Effects of body positivity and types of expression on social media, and women's subjective body size on mood and appearance satisfact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2*(2), 170–180. doi:10.5805/SFTI.2020.22.2.170

Leitch, L. (2024, February 28). Acne Studios Fall 2024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4-ready-to-wear/acne-studios

Leitch, L. (2025, September 24). Knwls Spring 2026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6-ready-to-wear/charlotte-knowles

Mower, S. (2025, February 22). Dilara Findikoglu Fall 2025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5-ready-to-wear/dilara-findikoglu

Phelps, N. (2023, September 24). Karoline Vitto Spring 2024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4-ready-to-wear/karoline-vitto

Phelps, N. (2024a, September 30). Balenciaga Spring 2025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5,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5-ready-to-wear/balenciaga

Phelps, N. (2024b, September 6). Brandon Maxwell Spring 2025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5-ready-to-wear/brandon-maxwell

Phelps, N. (2026, February 27). Gucci Fall 2026 ready-to-wear. *Vogue.* Retrieved September 1,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6-ready-to-wear/gucci

Rodgers, D. (2024, April 29). In leather skinnies, Anne Hathaway backs the drainpipe revival. *Vogue.* Retrieved August 28, 2026, from https://www.vogue.com/article/anne-hathaway-leather-skinnies-drainpipe-revival

The Kyoto Costume Institute. (n.d.). Dress (Azzedine Alaïa, 1987). *KCI Digital Archives.* Retrieved August 11, 2026, from https://www.kci.or.jp/en/archives/digital_archives/1980s/KCI_267

Yim, E.-H. (2014). Externalization of corset in contemporary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2*(1), 1–15. doi:10.29049/rjcc.2014.22.1.1

(Received September 23, 2026; 1st Revised October 11, 2026; 2nd Revised October 23, 2026; 3rd Revised October 26, 2026; Accepted October 29, 2026)